

10월24일(월)/딤후3:1~11 (1)

제목: 성령님만 계시면 됩니다.

디도의 의무는 교인들을 잘 깨우쳐서 그들이 선하고 옳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1~2절). 바울도 과거에는 그릇된 사람이었다. 그도 과거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몸을 맡기며 악습을 가지고 살았다(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값없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실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5절).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6~7절). 하나님은 성령님과 일하신다. 성령님이 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의 예배, 행사, 행정, 관리 등은 아무 것도 아니다. 아무리 교회 조직이 잘 되어있고 건물이 수려하고 예배가 훌륭해도 성령님이 그곳에 미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조직이나 사람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은 약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 우리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10월25일(화)/딤후3:1~11 (2)

제목: 토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

바울은 헛된 논쟁과 족보 이야기에 관한 싸움을 피하라고 하였다(9절). 논쟁은 헛된 일이다. 논쟁은 분파를 일으키는데 늘 일조를 한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분파는 거의 다 신학 논쟁 때문에 일어났다. 논쟁을 일삼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장본인이 있다면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물리쳐야 한다(10절). 논쟁을 좋아하고 자기의 설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결길로 빠진 자들이다(11절). 그런 자는 공동체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사상을 모든 진리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참신앙은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한 묶음을 하지 분열시키는데 일조하지 않는다. 크리스찬의 참다운 사명은 행동이지 논쟁이 아니다. 사소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하여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상하고 신학적인 논쟁 같은 것에만 흥미를 둔다면 그는 필요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행동해야 될 교회 일에 대해서는 반응이 느리고 형이상학적이고 난해한 신학 논쟁이나 토론하기를 좋아하는가? 좋은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

10월26일(수)/딤후3:12~14

제목: 크리스찬은 고민하는 사람

바울은 항상 자기의 편지를 마무리할 때 개인적으로 전하는 말과 인사로 끝맺는다. 바울은 마무리 부분에서 디도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 바울은 아데미와 두기고를 보내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디도는 니고볼리로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였다(12절). 왜냐하면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니고볼리는 바울과 디도와 만나기 편한 장소였고 여기서 중대한 논의를 하려 했던 것 같다. 또 바울은 서둘러서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였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달라고 하였다(13절). 아마 바울은 이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고자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말, 교인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뒷집만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14절). 주의 일에 필요한 기도, 자금, 사람을 위해서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떤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기도도 해야 한다.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냉담해서는 안되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 사람이 필요하다하면 무관심하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은 없는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

10월27일(목)/딤후3:15

제목: 축도만 잘 받아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가 디도에게 문안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과 함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아마 바울 곁에서 그를 돕는 동역자들 일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문안하라고 디도에게 부탁하였다.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며 축도로 마무리 하였다. 이 축도는 일반적인 바울의 편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축도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 무리’ 라는 복수 표현이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디도 뿐만 아니라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여러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한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도 임한다. 우리가 예배시에 받는 목사님의 축도는 이 때문에 중요하다. 축도는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 축도는 그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복으로 다가가게 된다. 그 공동체는 교회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다.

10월28일(금)/몬1:1~3

제목: 인간미 넘치는 기독교

빌레몬서는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온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책벌하지 말고 용납하여주기를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편지이다.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라고 소개하였다(1절). 바울은 통례적으로는 편지 서두에는 거의 자신의 사도권을 밝히고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을 ‘갇힌 자’ 라는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종 된 오네시모를 향한 주인의 너그러운 용서를 유도해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다. 바울은 참으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수신자의 이름을 빌레몬 외에 압비아와 아킵보라는 이름을 더 기록하였다(2절).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추측하고 아킵보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 빌레몬의 가족들이 좋은 중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다방면으로 오네시모를 돕고 있다. 당시 기독교계의 거장이었던 바울이 한 보잘 것 없는 노예의 인권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기독교는 항상 인권을 생각한다. 기독교는 항상 인간미가 넘친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